



사진으로 보는 역사의 진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8일부터 열흘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관에서 '사진으로 보는 역사의 진실'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관람객들이 함평·나주 등지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학살사건 등의 사진자료에 대해 진실화해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영산강에 폐그물 700여개 방치

80%가 수심 3m내 ... 몽탄대교 하류에 집중 쓰레기 쌓이고 물고기 폐사 ... 2차 오염 심각

영산강에 수백 개의 폐 그물이 방치돼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방치된 폐 그물은 부유쓰레기를 집적시키고, 물고기를 폐사시키는 등 2차 오염의 원인으로 이어져 폐 그물 제거가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분류보다는 영산강의 지류에 방치

된 폐 그물 등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영산강 폐 그물 적체현황 조사 및 효율적인 제거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로렌스 탐지기를 이용해 영산강(하구둑~몽탄대교)에서 관측된 폐 그물은 702

개에 이르고 있다. 로렌스 탐지기는 수중에 있는 지형 또는 구조물이나 가라앉은 물체들로부터 되돌아오는 음파의 신호를 받아 폐 그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비다. 영산강에 방치된 폐 그물은 특히 몽탄대교 하류에 몰려 있으며, 수중에 방치된 폐 그물의 80%가량은 수심 3m이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심 3m 이내는 상대적으로 그물을 설치하기 안전하고, 고기가 잘 잡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폐 그물이 분포하는 곳과 분포하지

않는 곳의 수질상태는 확연히 구별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폐 그물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종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방치된 폐 그물은 부유 쓰레기를 집적시켜 수질을 오염시키고, 물고기가 걸려 폐사하는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폐 그물이 집중된 몽탄대교 하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물질 농도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높고, 용존산소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를 맡은 조간대대학교 교수는 "영산강 분류보다 지류에서 벌어지는 무허가 어업 단속과 정화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후부터 비

광주·전남 10~70mm

9일 오후부터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일 밤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돼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광주·전남은 오전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오후 늦게나 밤부터 비가 내릴 것"이라고 8일 예보했다. 이번 비의 양은 10~70mm로 예상되며, 1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9~10일 사이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져 침수 피해도 우려된다"며 해안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초등 방과 후 학교 학부모 4천명 투입

학부모 4천명이 다음달부터 광주·전남 등 전국 각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의 행정 보조인력으로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방과후 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제를 7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방과후 학교에 배치돼 학생들의 방과후 학교 참여 수요 조사, 시간표 작성, 강사 인력풀 관리, 각종 홍보물 발송, 학생 출·결석 관리, 학부모 상담 등 교원의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이들은 6개월 간 매일 오후 3~4시간 정도 근무하며, 월 50만원씩의 봉사료를 받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승진로비 그만하고 일좀 하세요!"

광주 서구 민선 4기 마지막 인사 앞두고 '슬럼' ... 구청장 경고

광주시 서구가 7월 초 단행될 예정인 민선 4기 '마지막 승진인사'를 앞두고 크게 슬럼하고 있다. 로비전도 치열하다. 구청장이 직접 간부회의에서 인사청탁 자체를 공식적으로 주문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8일 서구에 따르면 국·실·과장급 45명 중 8명이 상·하반기에 정년퇴임함에 따라 대규모 승진인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등 8명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다음달 초 상·하반기 승진과 전보 등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미리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서기관과 사무관 등 승진 대상자 30여 명은 업무는 뒷전인채 인사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후의 승진인사'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승진 대상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노골적인 '인사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서구 내부 계서관에도 '공정 인사'를 주문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내부 분위기가 크게 슬

럼하고 있다. 서구의 한 직원은 "요즘 주무 계·과장들이 정신을 딴 데 두고 있는 것 같다. 해도 너무한 것 같다"며 "내부에선 '모간부가 고위층에 직접 청탁했다'는 등의 각종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전 서구구청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소집해 "직원들의 인사고충 및 상임연예에 인사 청탁을 하지 마라. 적발 땐 패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등산 자생 '무등풀' 멸종됐다

수목원, 멸종식물 분류

무등산에서 자생했던 '무등풀' <사진> 등 야생식물 4종이 국내 첫 멸종식물로 분류됐다. 국립수목원은 최근 발간한 '한국 희귀식물 목록집'에 무등풀, 파초일엽, 다시마고사리삼, 벌레먹이말 등 4종을 야생 멸종식물로 등재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 특산식물인 사초과의 '무등풀'은 1938년 광주 무등산에서 일본학자에 의해 발견된 이후 더 이상 관찰되지 않고 있다. 특히



무등풀의 경우 한국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멸종은 전세계에서의 멸종을 의미한다. 국내 4~5종밖에 없는 고사리삼과의 '다시마고사리삼'은 해남에서 발견된 뒤 50년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김형호기자 khh@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해질 19시 46분 달출 21시 14분 달몰 06시 04분

퇴근길 우산준비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겠으며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리겠다.

광주	흐리고 비	19/25°C
목포	흐리고 비	19/22°C
여수	흐리고 비	18/20°C
완도	흐리고 비	17/22°C
구례	흐리고 비	18/25°C
해남	흐리고 비	17/23°C
장흥	흐리고 비	17/23°C
고흥	흐리고 비	18/21°C
순천	흐리고 비	18/23°C
영광	흐리고 비	18/24°C
진도	흐리고 비	17/22°C
전주	흐리고 비	18/26°C
남원	흐리고 비	18/25°C
옥산도	흐리고 비	16/19°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1.0~3.0m	목포 03:14	08:29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3.0m	여수 09:34	03:54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3.0m	목포 14:52	20:14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1.0~3.0m	여수 22:24	15:36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9/23	18/28	17/28	17/29	17/29	17/30



광주 H병원·D약품

'약값 리베이트' 적발

복지부, 검찰 수사 의뢰

광주 H병원 등 지방 4개 병원과 광주 D약품 약품 도매상 6곳이 약값 리베이트(수급할인)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유통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사·도와 합동으로 4, 5월 '의약품 유통현황조사'를 벌인 결과 이를 확인,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가 병원과 도매상 간의 리베이트 관행을 확인해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상한가 인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H병원의 금품 수수자

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도매상들은 적발된 4개 병원에 약품을 납품한 뒤 납품가의 3~15%를 할인해 대금을 수령하거나 약을 더 주는 수법을 써 병원에 부당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5배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은 상한가 인하, 해당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다음은 '행복역'입니다
안전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365 안전 Safety **365 행복**

국립안전관리원
www.knra.go.kr